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		배포일자	2021년 5월 21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안전감찰팀장 허창선 ☎440-5746 • 담당자 유수미 ☎440-5748	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안전감찰 전담기구 출범! 안전부패 척결!

-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공식 출범,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-
- 안전감찰 체계 구축, 중점과제 선정해 상시 감찰 등 예방·감시 강화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「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‘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’를 출범하고 2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 협의회는 안전과 관련된 부패행위 감시 기능 등을 총괄하는 시 차원의 협의체다.

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10월 중앙단위의 ‘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’를 구성하고 2020년 6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돼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2021년 2월에 「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2021년 4월에 정식 출범했다.

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감찰 조직을 주축으로 인천시 시민안전본부

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·구와 15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, 2개의 유관기관(인천관광공사, 인천환경공사), 안전문화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민간대표 총 47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됐다.

이날 회의에서는 ▲금년도 인천시 안전감찰 계획 및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▲각 기관별 안전감찰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▲인천시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시는 앞으로 ▲협의회를 통해 인천시 안전감찰 체계를 구축하고, ▲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상시 감찰을 실시함은 물론 ▲적법성 조사,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안전분야 부패 예방과 감시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“안전관련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만큼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”며 “협의회가 안전관련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지역에 퍼져있는 안전관련 부패를 척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3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